



‘생활 속 거리두기’ 문화시설 6월 3일 문 여나

2월 24일 도서관 시작으로
미술관·박물관·공연장 휴관

단계별 개방 계획 밝히면서
20일 고3 등교 후 2주 뒤인
6월 3일부터 부분 개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달 3일 도내 공공 문화시설이 재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지난 6월 정

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도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을 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왔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6일부터 재개관했지만 제주에 있는 또 다른 공공 문화시설인 국립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실내 시설이 여전히 휴관했던 이유다.

제주도는 이번에 도민 사회의 피로와 지역경제의 영향도를 감안해 그동안 고강도로 이어져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정부 방침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앞으로 제주 여건에 맞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은 공공도서관이 2월 24일부터 문을 닫는 등 길게는 3개월 동안 문화시설 휴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전략을 통해 고3 등교 개학(5월 20일) 추이를 지켜보며 2주 뒤인 6월 3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시간·범위 등을 정해 1단계로 부분 개방하는 안을 마련했다. 2단계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마무리되는 6월 8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을 먼저 전면 개방하고 도서관, 공연장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공공시설 문이 열리더라도 당분간 관람 인원 제한 등 별도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현재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을 거쳐 시간당 100명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5인 이하 개별 관람만 가능하고 단체 관람은 안된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윤진남 과장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개방 방안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6월 3일 재개관 안에 이견이 없었다”며 “재개관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책의 도시, 제주시로 태어납니다

9월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제주시 선포식

5월, 제주시가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태어났다. 제주시는 이달 23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제주’ 선포식을 갖는다.

이번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시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한 제주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신산공원 일원에서 ‘지금 우리, 책’이란 주제 아래 제주의 돌담을 모티브로 보담, 들담, 필담, 만담, 놀담 5개 책 이야기를 담은 책축제를 이어간다.

이날 선포식은 9월 본 행사에 앞서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지 제주시를 알리고 국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문화·예술·출판·독서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대책을 마련해 치러진다.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시민독서운동 선포, 책 읽는 제주 선

정도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대전 사전 프로그램을 코로나 19 전개 상황에 따라 비대면 등 여러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NS를 이용한 ‘대한민국 인생 책장’, 동네 책방 투어와 전시, 탐라순력도 기행 등을 사전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11곳과 협업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독서대전 실무를 맡고 있는 우당도서관은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독서계, 도서관, 출판계, 서점, 작가 등으로 이루어진 독서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4)728-8341,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립호판

<20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제만그림글자 응용>



“옹이 골맨, “야고- 누님마쑈, 둘생이 말 들음데강? 돌림빙 따문 사실 사름덜 심심하카부텐 히어뜩흔 춤을 추멍 옷지왔겐 흘데다. 경호디양- 나 뱃소꿉이서 쪼로록 소리가 남신디 동고랴에 신뵤빅 먹고정 후우다. 먹야도 뽀꾸과?”

좁네 골았저, “경후라. 그거 먹멍 정지에 강 살레 그릇덜이영 솟 뚜껑 이영 극정하게 정리후라이. 손도 비누로 극홀하게 시치국 기침 흘 뽀로 잘 막으멍 후여사 후다. 돌림빙 따문 뽀심하게이.”

하르바지 골맨, “야오틸아- 제기 제기 이달로 오라보저. 놀레 글귀 추아주크메 후빈 뽀러덜 볼타?”

* 제주어 풀이

*사름덜 심심하카부텐 : 사람들이 심심한 줄 알고.
*히어뜩후다(혀뜩후다, 히어뜩후다) : <그림>잠깐 정신이 팽 돌아 어지럽고 몽롱하다. 이것저것이 뒤섞여 어지럽다.
*옷지왔겐 흘데다 : 옷졌다고 해요.
*동고랴(도고랴, 도솔기, 도솔기, 동고령, 동고리, 동오랴, 밥당석, 밥장석, 밥차롱, 밥차반이, 태오리차반지) : <이름>대나 버들가지 따위로 동그스름하고 자그마한 대그릇. 주로 도시락으로 쓰임.
*살레(살강, 살래) : <이름>네모지게 간단하게 짜서 부엌 곁에 세워 놓고서, 간단한 반찬이나 식기 따위를 넣어두는 가구. 찬장.
*죽다(직다) : <움직>글씨로 기록하다. 직다. *뽀러덜 볼타? : 보겠니?

-부호- /<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뽀>뽀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때씨(조사)/<때>때씨(조사)/<때>때씨(조사)/<때>때씨(조사)

-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쏘지

제주예술단 온라인 음악회

제주시가 이달 22일 오후 7시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과 함께하는 두 번째 온라인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귀에 익은 곡들을 선곡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지난 4월 온라인 음악회와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곡 가운데 독주나 독창이 가능한 곡도 뽑았다. 동요가수 이하은 어린이도 특별출연한다. 공연 실황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제주시청’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제주해녀와 함께 1박2일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은 6월부터 진행되는 문화재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제주해녀와 함께 1박2일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귀덕리, 김녕리, 오조리, 성산포 등 4곳에서 1일 4가구 12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고 별도 체험비는 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이메일(lovejeju2019@naver.com)로 이루어진다. 문의 010-2258-0288.

제주 스토리 공모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 스토리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제주만의 스토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기성 작가를 포함 국내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hado@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66-0705.

책이 있는 순간 공모전

우당도서관은 이달 31일까지 ‘책이 있는 모든 순간’ 사진·일러스트 공모전을 실시한다.

책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주어진다. 또 장려상 6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책사랑상 10명에게 각각 5만원 등이 주어진다. 입상작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진·일러스트 전시회에 출품되고 엽서와 책갈피 등으로 제작돼 행사 홍보용으로 활용된다.

‘신과 인간의 유희, 제주 곳’ VR 재현

사이버 공간에서 제주 곳의 가치를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전통연회자 오유정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으로 ‘신(神)과 인간의 유희, 제주 곳’이란 제목 아래 VR(가상현실) 촬영에 나선다.

이달 22-24일 진행 예정인 이번 촬영은 무속곳으로 대표되는 제주 전통예술이 남다른 빛깔을 품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바꿔보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제주큰굿보존회장 서순실 심방의 자문을 얻고

다른 전통연희자들과 협력해 사업을 벌인다.

이 작품은 제주 곳을 의례적, 종교적 개념보다는 ‘놀이’와 ‘노래’에 집중한 연희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특히 360도 VR 공연콘텐츠로 제작되는 만큼 1인칭 시점에서 보다 몰입감 있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국내외 관객들이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끈다. 결과물은 6월 중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해주세요.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제주에너지공사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3년 연속 선정

2020년 5월 29일까지 설치 신청 고객 모집 중!
3kW 설치 자부담금 220만5천원 + 하자보증 8년 + 48시간내 A/S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하자 이행 기간 5년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기본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나눔에너지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